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요..”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회

총지종은 총기33년도 여름 학생 수련회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생은 경북 경주에서 중·고등학생은 전남 보성과 순천에서 각각 2박3일 동안 개최하여 총지종의 수행법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포교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초등학생들에게 불교의 최대 성지인 경주를 주요 체험공간으로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 천년의 고도에 위치한 불국사, 천마총, 안압지, 점성대 등을 탐방, 불교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불교문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과 역사를 인식시키으로써 불교의 우수성과 역사성, 정통성을 고취시킬 예정이며, 경주에 위치한 총지종 사원인 국광사에서 입제식과 회향식을 가짐으로써 총지종의 사원과 의식을 실수하도록 일정표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녹차의 대량 생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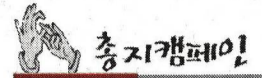


지난해 여름학생 수련회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안동의 하회마을을 방문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 전남 보성의 녹차밭에서 녹차의 재배방식과 녹차추출방법, 녹차를 마시는 예절법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의 전통문화인 차문화를 공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보성의 울포해수욕장에서 각종 오락행사, 승보사찰인 전남 순천의 송광사를 방문하여 문화와 오락, 불교의 사찰구조와 수행법, 역사성을 제공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정으로 추여에 남을 수련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학생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는 “이번 수련회는 여타 수련회와 차별성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가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련회에 참가함으로써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보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총지종의 수행법을 체득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여름 학생 수련회를 통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사원마다 자성학교의 활성화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회를 결성하여 참종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청소년과 청년회원들의 포교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청소년들은 내일의 꿈이라는 인식으로 세부적인 포교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억울한 죽음

한국의 한 젊은이가 낯선 먼 타국 이라크에서 본인의 의사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참수라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한 청년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들 간의 분쟁 한가운데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당시들의 목숨이 소중하듯이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권 목소리로 외치던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국도의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을 그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 청년은 죽음을 맞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들에게 강제로 구금되어 한 달 가까이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리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 하며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지도, 아니며 틀림없이 정부가 자신을 구해 주리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가지려고 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청년은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를 곁으로 돌아왔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은 깊은 슬픔에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전하는 방송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겨우 깨어났다 가 또 쓰러졌다.

한국의 한 청년이 무장 테러리스트에게 처참하게 피살된 이번 사건에 깊게 연관되고 그 빌미를 제공한 미국도 이라크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억울한 그의 죽음을 애도 하고 그 가족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한 이는 아무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젊은이의 죽음을 두고 이라크로 군대를 파병해야 한다느니, 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혹은 지금 이라크에 나가있는 부대로 철수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온통 난다. 물론 어느 쪽이던 그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사안이고 따라서 결정 또한 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 젊은이의 죽음보다 중요할 수 없고 어떠한 결정도 지식과 오빠, 동생을 잃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는 없다.

고 김선일 영성과 유연영성 왕생성불을 서원합니다.

“중생들의 업장소멸과 자비실현”

하반기 49일불공회향 방생법회



부산경남교구 스승님과 보살들이 함양군 농월정에서 열린 방생법회에 참가하여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발원하고 있다.

“지금 허공과 육지와 물속에 사는 중생들이 나에게 잡히고 죽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살행을 닦으면서 자비한 마음을 내어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고, 대승의 방등경전에 따라 삼귀의 계를 일러주며 여래의 십호를 외우고 십이인연을 말하여 이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하여 삼보의 위신력으로 해탈케 하소서.” 총지종은 하반기 49일불공을 7월 15일

회향함으로써 그 공덕을 회향하는 차원에서 방생법회를 오는 7월 16일 전국사원에서 각 교구별로 봉행할 예정이다. 우승 총리원장은 방생법회에 즈음하여 “방생법회는 불교의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그 가운데 살생을 금지한 불살생계를 중시한 계율이며, 방생은 불살생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길

이며, 살생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죽게 된 생명을 구해냄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의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생은 불사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방생법회를 물고기를 사다가 풀어주어 자신과 자기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린 듯 하지만 방생은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중생구제라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하며 공덕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공덕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른 생명을 구하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생은 한갓 미물을 방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널리 행하며,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의 여건을 제거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이웃의 소외되고 억압받는 중생을 해탈케 하는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길이 진정한 불자의 도리입니다.”라고 밝혔으며 “방생법회를 통해 각자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와 무릇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라고 발원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7월 16일 부산경남교구는 합천군 합천법 용문정, 대구경북교구는 경남 함양군 안의면 농월정, 서울경인교구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각 교구별로 방생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

7월 20일 서울 총지사서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5월 17일 서울 통리원에서 승단총회를 열고 제9대 종령으로 추대한 효강 대종사 종령 추대법회를 오는 7월 20일 서울 총지사에서 전국 스승님과 교계관계자,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할 예정이다.

종령 추대법회 준비위원장인 우승 총리원장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는 종단의 최고 어른신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여법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추대법회를 계기로 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키고 동시에 종단을 흥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효강 종령예하는 두 번에 걸쳐 종단의 행정수반인 총리원장, 종학과 밀교의 연구기관인 법장원장을 역임하여 교상과 사상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 종단내적으로는 정체성 확립과 철저한 계행, 합리적인 종단운영으로 내실을 기하며, 종단외적으로는 사회복지와 대사회활동을 강화하여 교계에서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셨던 큰 어른신으로 종단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도제양성과 교육체제정비, 대사회사업으로 복지의 활성화, 교세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천년의 잠을 깨고 일어나 정통밀교의 중흥을 위해

몸령정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효강 종령예하는 총지종에 입문한 이후 종단내적으로 총리원장, 교육원장, 법장원장 등을 역임하고 외적으로 불교방송이사,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등에 취임하여 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난 5월 17일 총지종 제9대 종령으로 추대되었다.

총지종은 효강 대종사의 종령 추대법회를 계기로 침체된 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키고, 각종 의식과 의례의 변화와 대사회활동의 활성화로 종단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제 2의 창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죽비소리

오늘부터 잘 해야지 하면서도 날로 악업은 나이가 지니는구나
늘어가고
내일부터 잘 해야지 하면서도 날로 선업은 시간이 흘러 흘러 하루가 급히 지나가고
줄어들며
내일부터 잘 해야지 하면서도 번뇌가 한이 없고
내년부터 잘 해야지 하면서도 깨달음으로
시공간이 흘러 흘러 하루가 급히 지나가고
나날이 흘러 흘러 보름 한달 속히 되며
한달 한달 계속되어 홀연히 일년 지나가고
한해 두해 거듭하여 문득 죽음에 이르도다
『발심수행장』중에서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

천년의 잠을 깨고 일어난 정통밀교 종단 총지종!

진언염송으로 즉신성불의 큰 길을 열어가고 있는 총지종의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총기33년(2004년) 7월 20일 오후3시
- ◆ 장 소 : 불교총지종 총지사
- ◆ 대 상 : 사부대중
-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불교총지종 종령추대 봉행위원장 우 승



특별대담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대담자 : 화령(이중석)/법장원 연구원
정리 : 지정(김용주)/총지종보기자

청정한 계율과 시대변화에 동승한 종단발전

▶대담자 : 종령으로 추대되심을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현재 총지종의 수행체계 및 의례에 대해 일부에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원정 종조남께서도 창종당시에 이원원리에 따라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교화방편을 달리하여 포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종당시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에 합당한 의식과 의례로 교화하여 교화가 활성화 되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한 시대에 맞추어 우리의 교화방편도 변화해야 하며, 밀교적 색채와 의식에 합당한 의식과 의례를 개발해야 합니다.

▶대담자 : 계행적인 면에서 예전에 비해 종단의 계행과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행자로서, 종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의 종단사정을 보면 계율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조남께서 편의보발로 등류법칙처럼 교화하라고 하신 까닭은 엄격한 계율과 수행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단도 법초항에 나와 있는 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교시에 따라 엄격한 계율을 지킬 때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화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근본은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청정한 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율만이 종단의 생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담자 : 본 종단의 종무행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기구 구성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원칙과 방침이 바뀌기도 하고 종단정책 방향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승직발령과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 재능을 둔 젊은 스승들의 경우나 도시사원과 지방사원의 스승인사이드이 자녀의 학교와 정서적인 부분 등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인사의 대원칙과 종단방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자 : 본 종단의 종무행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기구 구성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원칙과 방침이 바뀌기도 하고 종단정책 방향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승직발령과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 재능을 둔 젊은 스승들의 경우나 도시사원과 지방사원의 스승인사이드이 자녀의 학교와 정서적인 부분 등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인사의 대원칙과 종단방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자 : 본 종단의 종무행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기구 구성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원칙과 방침이 바뀌기도 하고 종단정책 방향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승직발령과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 재능을 둔 젊은 스승들의 경우나 도시사원과 지방사원의 스승인사이드이 자녀의 학교와 정서적인 부분 등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인사의 대원칙과 종단방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자 : 본 종단의 종무행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기구 구성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원칙과 방침이 바뀌기도 하고 종단정책 방향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승직발령과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 재능을 둔 젊은 스승들의 경우나 도시사원과 지방사원의 스승인사이드이 자녀의 학교와 정서적인 부분 등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인사의 대원칙과 종단방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자 : 본 종단의 종무행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기구 구성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원칙과 방침이 바뀌기도 하고 종단정책 방향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승직발령과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 재능을 둔 젊은 스승들의 경우나 도시사원과 지방사원의 스승인사이드이 자녀의 학교와 정서적인 부분 등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인사의 대원칙과 종단방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가장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담자 :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가장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담자 :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가장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담자 :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가장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담자 :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가장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담자 :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가장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가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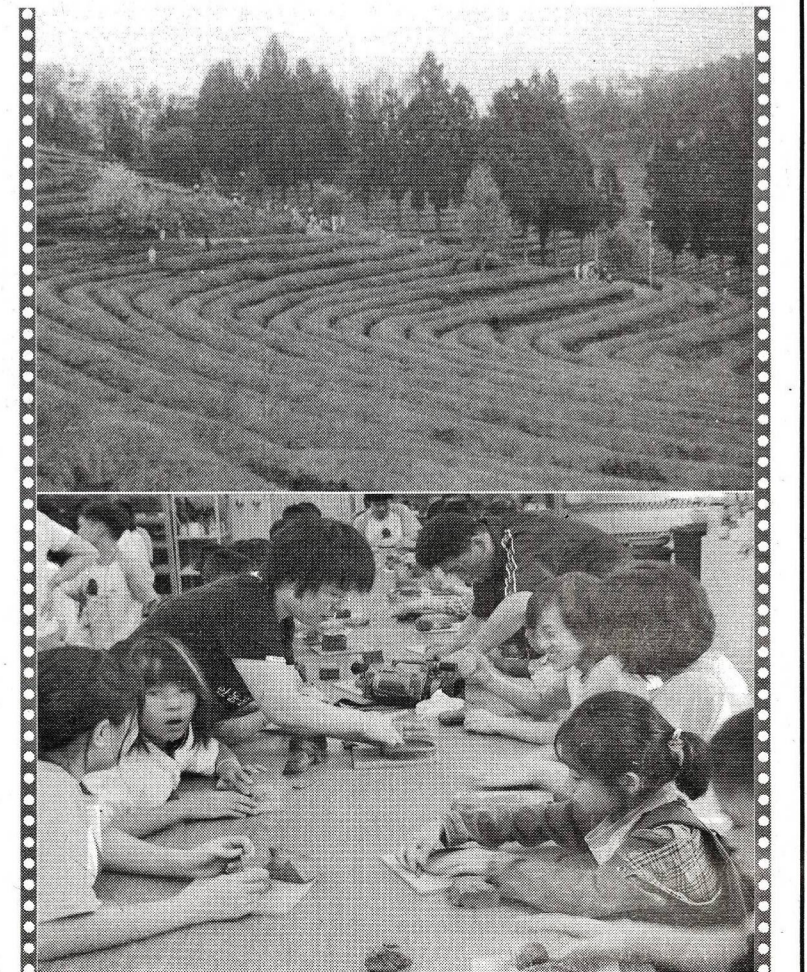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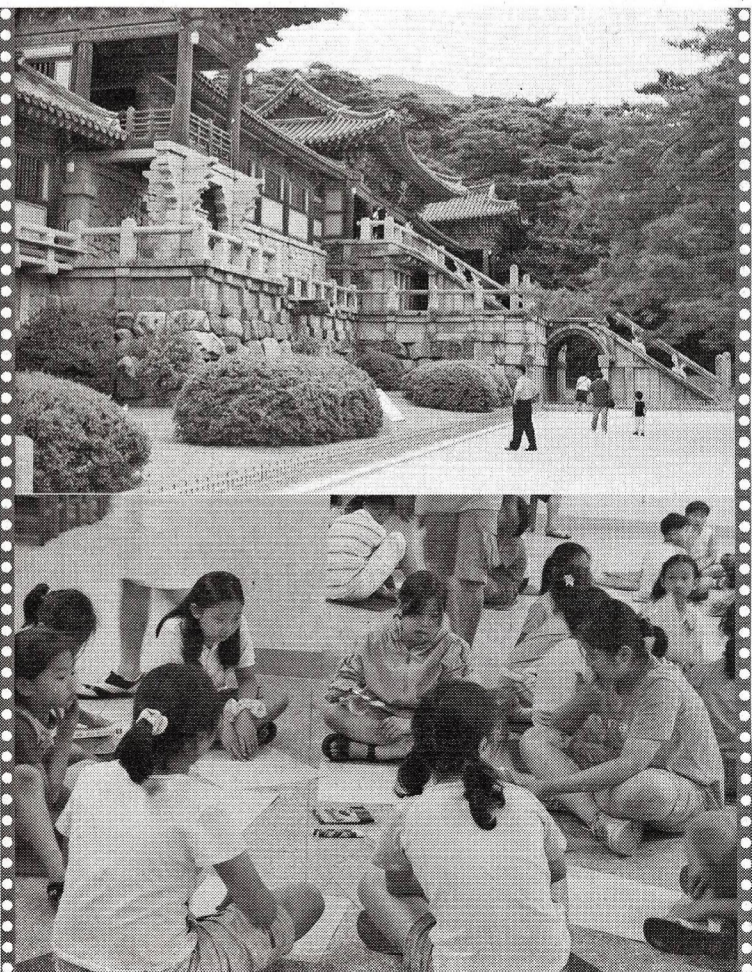
엄격한 계율을 지킬때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화발전 가능 훌륭한 도제양성과 사회복지 활성화로 종단의 미래를 약속

▶대담자 : 현재 본 종단은 의식과 의례 등이 사원마다, 주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교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단의 수행체계를 다양화하고 사원을 징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종령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주시고.

제14회 불교총지종 여름학생 수련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회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문화탐방을 통해 조상의 혼을 느끼고, 전남 보성의 녹차밭에서 한국 전통의 차문화를 체험하고, 총지종의 수행법을 체득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확립하는 여름학생 수련회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 1. 어린이 수련회
 - ◆ 일시 : 총기33년(2004년) 7월 26일~7월 28일
 - ◆ 장소 : 경상북도 경주일대
 - ◆ 대상 : 초등학생
- 2. 청소년 수련회
 - ◆ 일시 : 총기33년(2004년) 7월 28일~7월 30일
 - ◆ 장소 : 전남 순천, 보성
 - ◆ 대상 : 중, 고등학생
- 3. 공통
 - ◆ 참가비 : 1인당 2만원
 -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청소년은 수영복, 수영모자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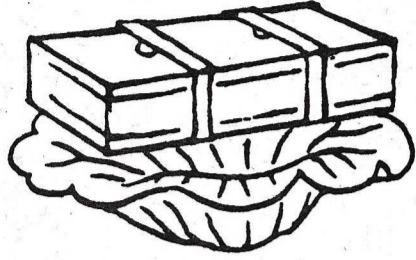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16

태장계만다라 '변지원(遍知院)'의

우루빈라가엽(優樓頻羅迦葉)·가야가엽(伽耶迦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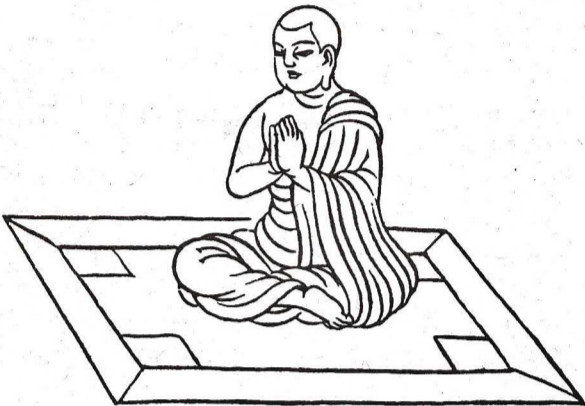
지난 호에서 변지원(遍知院)의 존상(尊像) 가운데 칠구지불모(七俱?佛母)와 대인락불공진실보살(大安樂不空眞實菩薩)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 변지원의 마지막 존상인 우루빈라가엽과 가야가엽에 대해 살펴 본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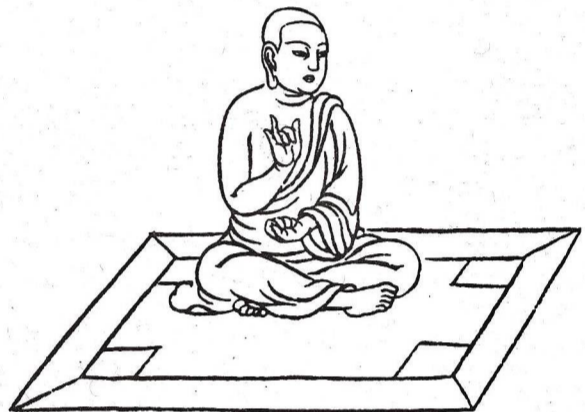
법첩

우루빈라가엽은 우루빈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불(火)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수행자 집단의 우두머리를 나타낸다. 석존의 신변(神變)에 의하여 석존

타 홀'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인연에서 해방된 자여! 업(業)으로부터 생긴 자여! 흠! 이라는 뜻이다. 이 존상의 종자는 '해(火)'자인데 heu(인연)의 머릿글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루빈라가엽



가야가엽

가야가엽은 우루빈라가엽과 같은 형제로서 그의 동생이다. 밀호(密號)와 존형(尊形)이 다를 뿐 그 외는 모두 동일하다. 삼매야행이나 인상, 그리고 진언도 똑같다. 밀호는 '이진금강(離塵金剛)'이다. 의미는 티끌 먼지로부터 멀어지는 금강이라는 뜻 정도가 되겠다. 존형은 오른손은 바깥쪽을 향하고 왼손은 가사의 한쪽 끝을 잡고 좌구(坐具)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진언종자도 같은 '해(he)'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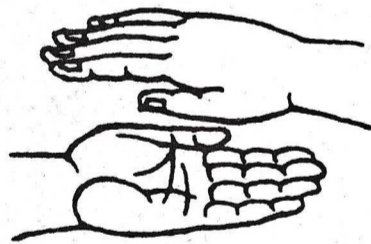
다음 호부터는 연화부원(蓮華部院 - 또는 관음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정리 : 법집원)

우루빈라가엽은 선교금강이며 인연에서 해방된 자
가야가엽은 이진금강으로 먼지에서 떨어진 금강

의 제자가 되어 석존의 교단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존상으로 묘사된다.

밀교적 명호로 선교금강(善巧金剛)으로 불린다. 삼매야행은 범협이라 불리는 것으로 연꽃 위에 놓인 보물상자이다.

존형(尊形)은 살색으로 합장하여 좌구(坐具)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인상(印相)을 범협인이라 한다. 이 우루빈라가엽의 진언은 '나모 사만다 붓다남 게이트하라짜야 비가타 가라마 니리자



범협인

아제 아제 바라아제

폭력이라는 질병 그리고 국가주의

이러한 저항세력에 의해 납치 살해된 고 김선일씨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흥역을 치르고 있다. 이제라도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인에 대한 복수와 국가의 체면유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전투병을 보내 테러분자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견대립의 이면에는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각기 다른 평가가 있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반인륜적 범죄인 테러를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평가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테러사건은 우리국민이 국제테러단체에 의해서 최초로 희생된 사건이기도 하려니와 워낙 최악의 상황에서 고인이 운명을 달리한 점, 그리고 국익이라는 명분 앞에 한 자연인의 생명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역사상 가장 반 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종교인 불교를 신봉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 불자들은 이 시점에서 폭력에 대해 무엇인가 나름대로 깊이 성찰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자들은 분명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자들이다. 선협적으로 근본 무명에 휩싸여있기에 탐욕과 분노라는 선천적인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결과 폭력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잠시만이라도 솔직한 마음으로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폭력이라는 만성적 난치병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개개인의 사소한 폭력에서부터 애국이라는 타이틀로 미화된 국가간의 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극단적인 폭력에 이르기 까지 너무도 많은 폭력적인 요소가 우리 가까이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상처받기 전에는 우리 대부분이 폭력 불감증에 걸려 대중 얼버무리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성싶다. 즉 우리에게 폭력은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그 무엇인 셈이다. 그렇다고 절망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선협적으로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성도 함께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누구라도 지혜의 힘을 길러 근본무명을 없애면 열반에 들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승화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실존적 한계 때문에 그 길을 충실히 따라가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의 건전한 지성을 너무나도 쉽게 마비시켜온 소위 (국가)라는 것의 존재가치와 그 한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인류의 수많은 역사적 과오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주의의 망령 앞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던 뼈아픈 상처가 생생히 남아있으며, 이번에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그 정책결정과는 무관한 국민이 살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를 납치 살해한자들도 단순한 강도나 정신병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전사들이라고 자처하는 집단이 아니던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제식민통치시절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족의 영웅들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국가주의라는 난제에 부딪치게 된다. 해결책이 아득해 보이지만 불교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정당한 폭력은 없다는 그래서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불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오히려 단순 명료한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상대적인 수많은 관계로 얽여있는 현실생활 속에서는 어떤 종류의 폭력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일명 정당한 폭력인 것이다. 그래야 사회의 기본적인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사회의 구성원들은 일정정도의 자유를 유보해야만 하고 그 기본 틀을 존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추상물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즉 국가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오직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때에만 국가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폭력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합리적인 이성만으로 단련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수많은 억압과 살상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순과 불행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국가라는 공룡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만 존재해야한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통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통제력은 국가를 이루고 사는 구성원들의 지성적인 판단 능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필자는 국가와 폭력에 대한 긴 담론을 풀어가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다. 그럴만한 지면상의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준비된 전문적인 식견도 없다. 다만 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큰 혼돈과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을 뿐이다. 살고 싶다는 한 젊은이의 절규와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권력담당자들의 결단 사이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건전한 양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김선미/인드림생명공동체 총무국장)

이달의 명상

수행인은 모름지기 대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휘어지지 않고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나 초지일관 하는 태도를 대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뜻과 절개를 굳게 지켜라

또한 몸과 마음이 도에 합치되도록 피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처음 발심하였을 때 이루고자 했던 그 맹세를 상기하면서 자신을 꾸짖고, 계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인과의 법칙을 철저히 믿고, 항상 바른 신심속에서 불법을 실

천해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놓는 일이 복 짓는 일이 아니면 허물을 짓는 일이요, 말 한 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한 생각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복과 허물이 천지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다면 어찌 경망되어 노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솔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자기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의 허물에 대해 냉철한 이성을 갖추어야 하고, 잘못을 알았으면 고집을 부림이 없이 곧바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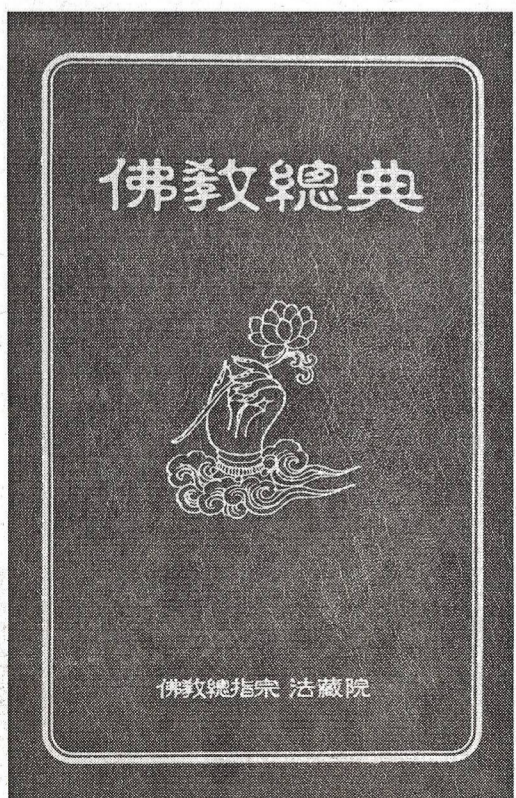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실천 공부 ⑫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기독교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현대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습격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미련해 둔 것이다.

천종 만종 가운데는 어떠한 종파 하나가 실천하고 지도해서 정도(正道)를 세우게 된다면 천종 만종의 종파가 따라서 다 실천하고 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만약 그때에 실천하고 지도하는 법을 따르지 않는 종파는 그로부터 없어진다는 연고이니라. 이것은 서로 달라져서 양극과 음극과 같이 서로 접촉하지 않고 상대가 되어서 경쟁하는 것은 피차가 발달하는 방법요 한 집안에 여러 종지를 가져서 투쟁하는 것은 파차(破差) 없애는 법인 까닭이다. 백천(百千) 학자(學者)가 다 내 학자만 같지 못한 종파가 선 곳에는 다른 사상이 잘대로 들어서지 못하는 고로 자유세계를 세우는데 종교 발전은 사람의 심장 안에 동맥과 같은 것이다.



종지(宗旨) | 인간적 윤리를 세우자면 여러 종교 종파가 각자 종지를 확고히 해야함

사람이 정열을 세우는 때는 절개는 무언 중에 서게 되고, 교가 자기 종지를 세우는 때는 정열을 지어 서게 된다. 남여가 서로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종파가 서로 종지를 확고부동하게 세워야 되는 원리와 똑 같으니라. 현재와 같이 인류도덕이 무너져서 지조가 없고 절개가 썩은 이때에 금수와 다른 인간적 윤리를 세우자면 여러 종교 종파가 각자 종지를 굳게 세우고 확고부동한 사상이 세계 될 때 사회는 자유주의가 세계되고 국가에는 민족적 자결이 서게되고 정당정치에는 정당정책이 서게되고 국민에는 남여간 정조가 서

게되는 원동력이 되느니라. 율리 원칙과 종지 방편이 다른 교에서 한집같이 서로 오고 가게 되면 종지는 피차간 상대가 되어 있는 까닭으로 내게 세우고저 하는 종지도 확고한 힘이 없고 저가 세우고저 하는 종지도 확고한 힘이 없어서 개 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 승적 유익함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종파간에 종지를 굳게 세우지 않고 일정없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밝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든지 민족적으로 보

든지 정치적으로 보든지 남여간 정조를 보든지 일체 지조가 없고 사업은 풍타 날아가 되어서 근본 토대가 있는 장구한 사업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유세계의 공도(公道)에 따르는 행사(行事)

양을 쓰면 행복되고 음을 쓰면 고통되므로 봉건시대는 음으로 어두워서 작게 살았고 민주시대는 양으로 밝아서 크게 살게 되나니 우리도 이로부터 곧 양을 쓰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물은 양에 살아내고 음에 죽어가므로 양을 쓰는 나라는 부귀하고 음을 쓰는 나라는 빈천하다. 양지에는 살기 좋고 음지에는 살기 싫으며 양지에는 수입이 많고 음지에는 수입이 적어서 양을 쓰면 행복되고 음을 쓰면 고통된다.

유(儒)는 음을 따라가고 불(佛)은 양을 따라온다. 이 우주에는 태양이 새로 밝아지고 인간에는 불법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워라. 사월 팔일 석존 성탄절을 어느 누가 경송하지 않겠느냐. 심인불교는 현세인라 새불교라 칠일마다 침략없는 심인 하루날은 물심 양원(物心兩元)을 세우고, 일년 일차 기념하는 삼보 사대절은 유무상의 이원을 세우는 것이다. 석가세존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불타 되실 일생보처 위에 호명보살로서 도솔천 임금이 되시었다가 지금으로부터 이천 구백 팔십년 전 인도 가비라국 정반왕의 제일 왕비 마야부인에게 태자로 탄생하시어 설산 수도에 육년간 용맹정진 하시와 설한 한살 되시던 해에 이월 팔일 새벽에 비로소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학해(學慧)

각해(覺海)는 깨닫는 바다라 불교를 말할 것이니 불교는 원래 깨달음을 근본하고 그 가르치는 뜻이 바다와 같이 깊으므로 넓은 것을 이르는 것이다.

해인(海印)은 각해 심인을 두 글자로 줄인 것이니 깨달은 이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모든 법을 비추어 봄이 마치 풍파가 가라앉고 고요한 바다에 일만 형상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음을 이르느니라.

포교(布教)

이성은 암흑케 된 오백년 동안 법절을 주로 하던 시대는 다하고 진실이원 시대로 들어가는 초기에 벌써 물질에 대한 실리는 자발적으로 원하고 배우게 되었으나 심인에 대한 진리는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게 된 과정에 처한 과학만 아는 이에 대해서는 물질에 선후본말이 바꾸어

어저 있는 것을 먼저 알리어서 불교의 생사 열반, 곧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극락간다는 두 율리 가운데 살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실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먼저 지도하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원소를 실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과학을 배운 이에게 현세에 인과가 분명하여 실증하고 내증할 수 있는 심인 불교의 방편은 과학과 현밀(顯密)이 다를지언정 그 이론과 법칙은 하나인 것임으로 쉽게 알게 될 것이요 동시에 깊고 깊은 미묘한 법에 이르기까지 깨닫고 실천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총학연구실)

조선화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요실금(尿失禁)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는 배뇨이상으로 사회적 활동 또는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기 여성인구의 30% 정도에서 요실금을 호소하며, 노인층에서의 발생빈도는 더욱 높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방광 근육이 비대해지고 방광벽이 두꺼워져서 방광의 확장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방광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소변의 양이 300~400ml에서 200~300ml로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 또는 수술 등으로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골반근육과 방광이 처지거나 폐경기이후

요도와 방광의 혈관들이 위축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생리적인 면으로 남성의 1/4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요도길도 요실금의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대뇌의 중추 기능이 저하되어 방광 충만감을 감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낀 후 소변을 볼 적절한 장소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노인에서의 요실금은 한가지 원인에 의해 유발되긴하나 여러 가지 노화로운 변화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요실금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1. 선천적으로 신기(腎氣)가 허약하여 방광과 주변생식력이 약해져 발병하는 경우
2. 평소 허복부가 냉하거나 하체가 약해 방광 결속력을 저하하는 경우
3. 반복적인 출산과 수술, 유산, 폐경으로 방광을 비롯한 자궁, 요도, 골반근육이 이완되어 발생하는 경우
4.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긴장상태를 통해서 기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방광 및 소변배출기능이 무력해 질 경우

치르는 하복부에 위치한 방광, 자궁 및 장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운을 보강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진 간, 심장, 신장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중이(가)탕, 육미지황탕, 신기환 등의 처방을 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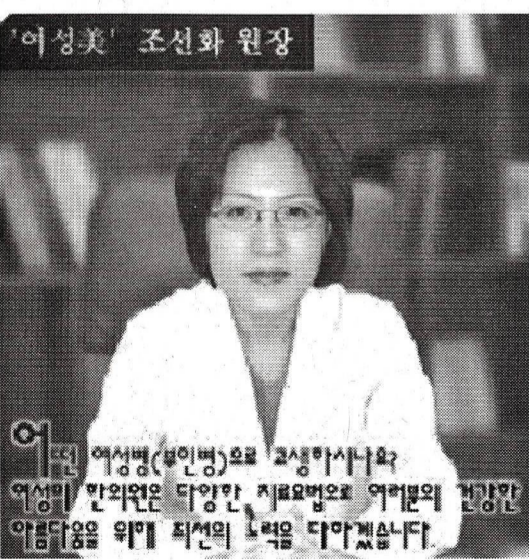
또한 외치법으로 사상자, 익모초, 쑥 등의 약재를 끓여 기운을 질 내로 쏘여 주거나 세정을 하는 좌훈욕과 한방좌약 등을 이용하여 질 내에 삽입함으로써 수축력과 방광 및 생식기능을 회복하는 치료효과를 배가시키게 됩니다.

* 요실금예방법

- 1. 골반근육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2.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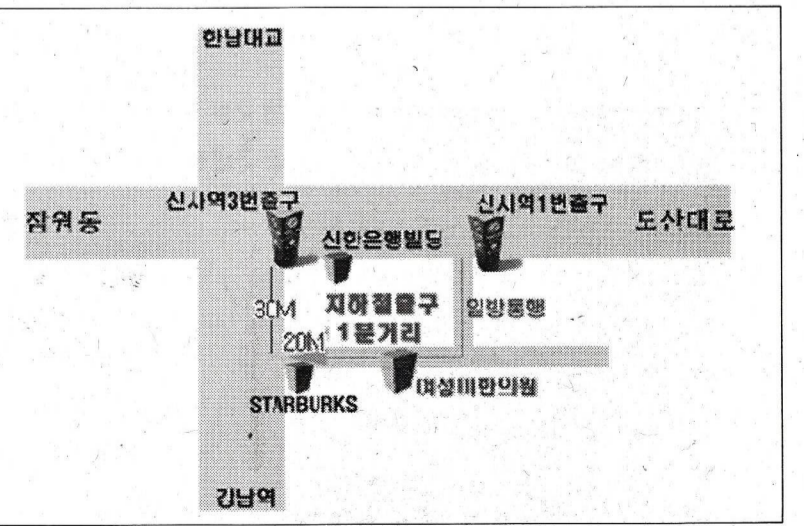
- 3.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알콜, 카페인 함유제품, 초콜릿, 탄산음료, 설탕, 인공조미료, 신과 일주스 등)이나 이뇨 효과가 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4. 변비가 있을 경우 복압상승의 요인이 되어 방광을 자극하면서 요실금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5. 흡연으로 인해 과도한 기침을 하게되는 것도 요실금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비만의 경우 복부지방으로 인해 복압이 상승하거나 골반근육이 약해져 요실금을 유발하므로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한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우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자(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풍경소리

인연

돌아보면 회한 가득한 것이 인생이지만
내다보면 그래도 희망이 가물거리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도 산길을 걸으면서 눈길에
내 발자국 찍는 것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벽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또 희망을 향해 걷는 사람일 수도 있다.
도술천이 아니어도 이 곳은 아름답다.
한 줄 바람과 별빛이 마음 건널 수
있다면 그리고 늙어감을 귀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곳에서 부르는
노래는 결코 외로움이 아니다
눈길을 걸으며 사랑한다고 되뇌인다.
인연으로 내 곁에 와 머물던 모든 것을
저 흰 눈 속으로 떠나갈 때
사랑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본다.
그리움은 어제의 이름이다.
오늘은 화롯불에 터지는 밤송이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기다리고 싶다.

꿈꾸는 섬

섬은 꿈꾸고 있었다.
좌악 밀려오는 파도에 씻기우며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꿈속의 모랫밭에는 꿈속에서만
사는 어부가
꿈을 낚는 그물을 깊고 있었다.
얽힌 울음을 풀며
역만걸 전생의 시간을 풀며
꿈꾸는 섬의 어부는
꿈속에서 꿈을 깨고 있었다.

- 오세영/방송인

가난한 사람에게

네 오늘도 그대를 위해
창 밖에 등불 하나 내어 걸었습니다.

내 오늘도 그대를 기다리다 못해
마음 하나 창 밖에 걸어 두었습니다.
밤이 오고 바람이 불고
드디어 눈이 내릴 때까지
내 그대를 기다리다 못해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 내린 들길을 홀로 걷다가
문득 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정호승/시인

꿈, 견디기 힘든

그대 벽 저편에서 중얼댄 말
나는 알아들었다.
발 사이로 보이는 눈발
새벽 무렵이지만
날은 채 밝지 않았다.
시계는 조금씩 가고 있다.
거울 앞에서
그대는 몇 마디 말을 발음해본다.
나는 내가 아니다 발음해본다.
꿈을 견디는 건 힘든 일이다.
꿈, 신분증에 채 안 들어가는
삶의 몽땅, 쌓아도 무너지고
쌓아도 무너지는 모래 위의 아침처럼 거기 있는 꿈

- 황동규/시인

갈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비라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 신경림/시인

나도 한마디

세계속의 총지종이 되었으면...

총지종을 너무 너무 사랑하고 자신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많이 입었기에 간단하게나마 종단에 바
라는 점을 몇 자 적어 볼까 합니다.
우선 젊은 스승님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발
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종단운영을 설계하고 원로 스
승님들은 지난 삶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
대와 원로 스승님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종단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들 현재 한국
의 가장 큰 갈등이 세대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고 하는데 우리 종단도 이점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
습니다.
원로 스승님들께서는 젊은 스승과 신도들에게 지
혜를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신세대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금보다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조계종, 천태종 등 여타 종단에서는 이미 예
전부터 공개법회를 통해 젊은 신도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는 변화를 인정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스스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또한, 강공회등 각종 종단의 회의를 최대한 공개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총지종은 스승님들과 신도들
이 함께 이끌어 가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32년의
총지종 역사속에서 종단 운영에 대한 시비로 갈등
을 겪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아픈 기억을 재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공회에 지회장님과 각 절
회장 및 총무보살님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면 합니
다.
종단의 운영이든 나라의 경영이든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것만이 여타 시비소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밀법을 외국에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현각스님과 같은 분을 보면서 세계속의
총지종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꿈은 꼭
이루어지니까요

(이연수/서울시 성북구 중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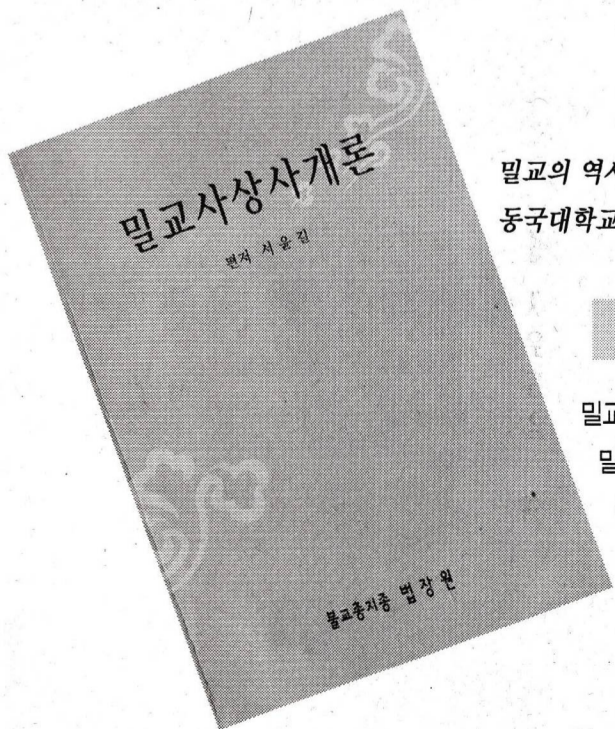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30화-

글.그림/정수일

휴우~ 윤회고 계란이고 간에 요즘 장사 안돼서 죽겠습니다.
에구... 왜 그러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대형으로 체인점까지 차려 밀어 부친다지만 우리 같은 구멍가게는 월세내기도 바쁘답니다.
많이 좀 팔아주세요.
휴우~ 나는 언제 부자 한번 돼볼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와~ 굉장한 부자구나. 나도 저처럼 큰부자가 되고 싶어..
나도 저런 훌륭한 차를 사고 싶은데...
에게.. 겨우 동전 500원밖에 없잖아..
차는 고사하고 과자도 못 사먹겠다! 다 필요 없어.
이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헛! 이까짓 것 가지고 언제 저 큰 부자만큼 되겠어요?
지금은 내가 가진 돈이 적지만 노력하면 앞으로 더 많이 늘일 수 있는 거란다.
각자님, 혹시 저 아이 처럼 노력도 하지 않고 큰 부자 되려고 하는것은 아니겠지요?
그.. 그렇군요.
애야, 왜 그걸 버리려 하니?
과거세의 원인인 "무명과 행"에 의해 현세의 결과인 "식, 명색, 육입, 촉, 수"가 생긴다 라고 설명해드렸고, 또 다시 현세의 원인인 애(愛), 취(取), 유(有) 때문에 미래세의 결과인 생(生), 노사(老死)가 생기는 것이죠.
"애(愛)"란 고통은 멀리하고 쾌락을 구하는 근본 욕망을 말하며 "취(取)"란 자신이 욕심 낸 바를 전부 가지는 것이며 "유(有)"란 업의 다른 이름이자 애, 취에 의해 생긴 미래의 결과를 말한답니다.
옴마니반메흠...! 오오.. 대성사님, 그럼 저도 성공할 수 있겠는지 손금 좀 봐주실래요?
고응...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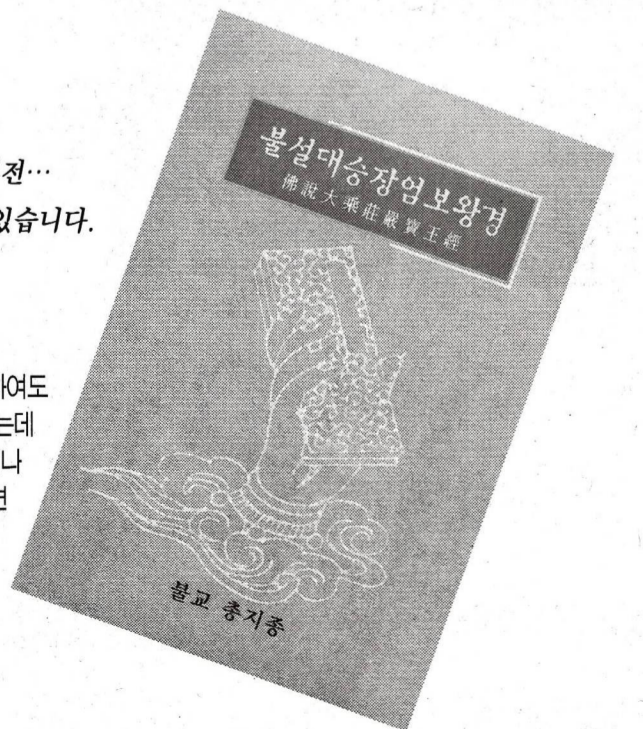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